

“건강수명 120세 달성을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제 4회 기생충질환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4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건강수명 120세 달성을 선포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글 주연옥 기자 사진 박재성(이코노미리뷰 기자)

지난 11월 7일 여의도 63빌딩 3층에서는 여느 때보다 뜻 깊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내년 50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창립기념식은 반세기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자리에 우뚝 선 건협이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건협을 그려보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건협 조한익 회장, 이순형 고문 등 임직원들과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신언항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1부 ‘창립 49주년 기념식’에서는 시상식과 건협 49년의 발자취가 담긴 기념영상 상영을 해 그간 협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각종 표창의 시상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선희 건협 부산광역시지부 영상의학과장 등 4명이 수상하였으며, 법무부장관표창에는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은수 건협 경기도지부 사업개발과장 등 2명이 수상하였다.

또한 건협과 협력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시상하는 유관인

창립 49주년 기념오찬

2013. 11. 7.





“ 조한익 회장은 “19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발족, 지금은 전국적으로 16개의 건강증진의원이 설립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증축을 통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 감사패에는 김용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보건진료소 팀장 등 3명이, 유관기관 감사패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수상하였으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한 메디체크 언론기자 상에는 이상만 일간보사 편집국장과 임광명 부산일보 기자가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진협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 및 우수직원 표창, 메디체크 학술경진대회 우수 논문 표창 등의 시상도 진행되었다.

건강환경 가꾸기에도 앞장서는 건협

기념사에 나선 조한익 회장은 “연간 370만명의 검진인원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찾고 있다”고 운을 뗀 뒤, “19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발족, 지금은 전국적으로 16개의 건강증진의원이 설립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증축을 통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질병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120세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조한익 회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건강환경 가꾸기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올해에 전국 16개 주요 하천 유역 3,379㎡ 면적에 ‘메디체크 건강 환경 가꾸기’활동을 전개해 수질정화에 도움이 되는 노랑붓꽃을 식재하였고, 내년 5~6월이면 이 꽃들이 만개해 하천을 맑게 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앞으로도 건강 환경을 가꾸기 위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도 말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창립 49주년 기념 케이크 절단식을 시작으로 참석한 내외빈, 건강관리협회 직원들이 함께 답소를 나누며 오찬을 즐겼다. 2부에서는 ‘제4회 메디체크 기생충관리 심포지엄 2013’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 기생충 질환의 최근 추이를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조한익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하 부본부장의 2012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질환관리사업 결과보고에 이어 서울의대 채종일 교수, 단국대 서민 교수, 한양의대 안명희 교수, 질병관리본부 조신형 연구관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건협은 창립49주년 축하 화환을 쌀 화환으로 대신하여, 이날 모아진 쌀은 11월 21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다. ☺